

Cantata “강하고 담대하라”

김광순 (작곡가)

지난해 10월에 여러 가지 속뜻을 담은 공연을 기획하여 펼쳤는데, 내가 작곡한 칸타타 “강하고 담대하라”이다. 부제를 ‘호남선교 120주년 기념 음악회’라 하였는데, 2013년은 호남지방에 복음이 전파된 지 두 갑자가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역사 기원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사람의 장로교와 감리교 목사가 제물포(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때로부터 셈한다. 두 선교사가 배에서 내린 1885년 4월 5일은 마침 그해 부활주일이었다. 부활의 아침, 사랑의 어둠이 깃든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한 날로 기억할 만하다.

제물포항에 내려 서울에 들어온 개신교회 선교사들이 남쪽 충청 이남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1893년 1월 미선공의회가 조직되고 각국 선교부들에 의해 선교지역이 할당되었는데, 그 결과 호남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 몫이 되었고 그해 가을에 비로소 선교사의 발이 금강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때는 1893년 9월 어느 날로 기억된다. 전주서문교회 100년사에 의하면 미국 남장로회에 속한 선교사 두 사람, 테이트(최의덕)와 전킨(전위령)이 서울로부터 전라 감영이 있는 전주부에 내려온 때를 개신교 호남 선교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13년은 그때로부터 선교 개시 120년이 되는 해였다. 이때에 그들이 세운 전주서문교회에서 나의 아버지

와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조부로부터 섬겨온 이 교회는 나의 뿌리이고, 근원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결혼하여 고향에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한 성가대 지휘를 20년 동안 계속하였으며 그 사이 두 자녀도 낳았고, 지금 근무하는 전주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활발한 활동도 펼쳤다. 전주서문교회의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도 지휘하였으며, 여러 가지 교회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였다. 그러나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하던,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이 교회에 분쟁이 시작되었고, 악랄하고 끝없는 이 처절한 싸움은 그칠 줄을 몰랐다. 곧 평안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은 그동안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던, 교만하고 헛된 믿음과 신앙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의 기억 이전부터 이어 지던 내가 그렸던 교회는 허상이고 우상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기나긴 방황을 마치고 작고 평화로운 새로운 교회에 안착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 지난해 2013년을 맞으며 참으로 착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주서문교회를 평생을 사모하며 섬기던 부친(김대전 장로 1922-2012)께서 지난해 모 교회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셨기에, 더더욱 아무 짓도 없고 모른 체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선친께서 흠모하고 평생을 그리워하시던 석운 김가전(1892-1951) 목사의 생애를 조명하는 칸타타를 작곡하여 연주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나마 위





로를 받으며, 듣는 이들에게도 선각자의 믿음을 감동의 울림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였다. 교회의 보여지는 성과를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뿌듯해하는 역사보다는, 믿음을 쌓아가는 구원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석운 김가전 목사의 생애는 위당 김규배선생의 2남으로 충남 한산에서 출생하였고, 온 집안이 기독교로 개종한 1900년에 신앙을 받아 들었다. 1906년 충남 한산에 신학문을 교육하는 한영학교에서 초등 및 초등중학교 과정을 학습하고, 군산 영명학교를 졸업한 후 한영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16년 서문교회에 시무하게 된 가형(家兄) 경제 김인전(經齋 金仁全, 1876~1923,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제 4대 원장) 목사를 따라 전주로 이거하여 1919년 경제 목사님과 함께 전주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일본경찰에 붙잡혀 징역 옥고를 치르셨다. 192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1925년 전주신학교 교목으로 발령받았다. 1926년 전북노회 노회장으로 선출된 후, 1930년 목사로 장립되었다. 해방 직후 1946년 전주북중학교 2대 교장에 취임하여 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의지를 보였으며, 1949년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라북도 도지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1950년 6.25동란이 발발하고, 피난민 구호에 동분서주하던 군산 출장 중 1951년 10월 5일 쓰러져 유명을 달리하였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석운 목사가 평소 신념을 세우고, 마음

에 품어 몸소 실천하던 말씀으로 이 칸타타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두 명의 독창자와 합창단 그리고 2관편성의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이곡은 13곡으로 구성하였다. 테너 독창자는 석운 목사역이며, 소프라노 독창자는 그를 따르는 제자 혹은 성도들의 노래로 설정하였다.

제 1곡 서곡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여호수아 1:9)에 의한 Orchestra Overture 이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이 아무런 대책이 없던 일제 강점기를 맨몸으로 건너던 석운 목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진다.

제 2곡 합창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하라>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만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제자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이끌었다는 합창곡이다.

제 3곡 테너 서창과 아리아 <모진 비바람 어찌 견디리>
 어린 시절 한일 병합을 당하여 참담한 처지의 민족의 모습을 걱정하며, 기필코 독립을 쟁취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노래한다.

제 4곡 합창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은 석운 목사가 항상 부르며 의지하였으며, 이 찬송으로 막막한 현실을 이겨내는 도구와 간절한 기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곡은 4개의 변주로 구성하였으며 민족 해방의 절박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제 5곡 테너 서창과 아리아 <겨레여 깨어라>
 석운 목사가 제자와 성도들에게 굳은 믿음과 민족정신을 독려하고 추종하는 동지들에게 자신의 각오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창씨개명과 신사 참배를 결연히 거부하고 갖은 고초를 이겨내어 마침내 자주독립과 바른 신앙을 지키셨다.

제 6곡 합창 <외쳐라! 온 고을 백성아!>
 기미년 삼일 만세운동 당시 온 백성이 결기하는 모습을 그린 곡이다.

제 7곡 소프라노 서창과 아리아 <총칼이 못 막네!>
 1919년 삼일만세운동에 임하는 백성들과 제자의 모습이며, 인용한 애국가가는 당시에 부르던 곡이다.

제 8곡 합창 <민족 해방의 그날>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염원하던 민족 해방을 맞아 온 백성이 다함께 큰 기쁨을 노래하는 곡이다. 석운 목사가 53세 때이다.

제 9곡 테너 서창과 아리아 <박애, 자유, 지성, 노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맞이한 해방 공간에서 조국과 고향을 바라보는 석운 목사의 의지와 신념을 나타내는 곡이며, 본제는 당시 교장으로 추대된 5년제 전주북중학교의 교훈이기도 하다.



김광순 작곡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세종대 대학원(석사)을 졸업하였으며 Bulgaria 국립 소피아 음악 아카데미(박사)를 수료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교향곡 '아리움', 오페라 '정국인', '건원 대왕', 뮤지컬 '상춘곡', 'Love & Gate', 칸타타 '구시포 노랑모시조개', '구원의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대 바람소리', '강', 무용곡 '바다에서 온 여인', 'K에게' 등이 있다. '바람소리'와 '온 고을 소곡'을 통하여 우리말의 정확한 표현을 꾀하는 발표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 사예술품 기획 예우의 대표, 전주 갈릴리교회 지휘자이다.

제 10곡 합창 <내 나라 내 교장>
 이 곡에 인용된 북중학교의 교가는 석운 교장 시절에 제정되어 불리었다. 또한 인용된 6.25 노래는 김동진 작곡이며 개사하여 사용하였다.

제 11곡 테너 서창과 아리아 <이 몸 바쳐 사랑 하리>
 석운 목사가 해방 후 여러 가지 활동에서 실천한 본인의 마음과 각오를 그리는 곡이다. 석운 선생은 1946년 북중학교의 교장, 1949년 전라북도 도지사로 일하며, 전북대학교를 설립 했고, 전쟁 중에는 전신연립대학교 만들었다.

제 12곡 소프라노 서창과 아리아 <아! 넘어 가고>
 6.25 동란 중에 도지사의 업무를 막중히 여겨 몸을 돌보지 않고 시무하시던 출장 중 쓰러져 유명을 달리한 석운 선생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조가이다.

제 13곡 합창 <기도 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저는 죄로 불결하여 거두실 것 못 되오니 보혈로 씻어 주사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아멘.

사)예술기획 예우가 기획하고 주최한 이 연주회는 2013년 10월 17일 19시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홀에서 열렸다. 지휘에 윤의중, 소프라노 독창 서보란, 테너 독창은 김재명, 첼발로는 이영미였다. 합창은 서울마스터코랄 Orchestra에는 클라우모우케스트라가 연주하였다.